

2021년 수지기쁨의교회 추석명절 가정예배

■ 인도 : 가족대표

이 시간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합니다.

- 신앙고백 ----- 사 도 신 경 ----- 다 같 이
- 찬 송 ----- 찬 559장 ----- 다 같 이
- 기 도 ----- 가족 중에서
- 성경봉독 ----- 룻기 1장 11~18절 (구약 p402) ----- 인 도 자

11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이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12 내 딸들이 되돌아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면 오 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 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이 그럴 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와 그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 음이 아프도다 하매 14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 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15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 가라 하니 16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 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 무 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 말 씀 ----- 인 도 자

유다 베들레헬에 살던 나오미와 그의 가족은 흉년을 피해 이민을 갑니다. 이민 생활 10년 만에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습니다. 처량한 상황이지만 그녀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래도 남아 있던 가족들 덕분입니다.

1. 사랑으로 교제하는 가족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본래 유대인이 아닌, 모압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이 통했고, 마음이 통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며느리들을 딱하게 여겼고, 룻은 자식들을 잃은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나를 딸로 생각해주세요. 어머니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나오미와 룻의 아름다운 대화는 진심어린 사랑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서로를 향한 이런 사랑과 배려에 있습니다.

2. 믿음으로 교제하는 가족

룻은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죽는 일 외에는 결코 어머니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의리는 믿음으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룻은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선언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가치관과 인생의 전부입니다. 가족들이 같은 믿음 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죽음 이후의 영생까지 함께 한다는 결단입니다.

현대인의 비극은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만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쉽게 관계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장거리를 완주하기 위해선, 가족이 서로 아픔과 슬픔, 기쁨과 즐거움을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코로나 19’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소상공인들 뿐 아니라 개인 적인 모든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가족 간에 생명과 죽음까지 함께하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 축복과 격려 ----- 다 같 이

※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용기있게 살아가도록 서로 마음을 다해서 격려해 주세요

- 찬 양 ----- 찬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다 같 이
- 예배마침 ----- 주 기 도 문 ----- 다 같 이